

# 양돈단지 조성과 운영, 무엇이 문제인가?



홍경표 교수  
(중부대 동물자원학과)

## 1. 양돈단지의 현황

WTO의 발족으로 국내 돈육 시장은 '95년 1월부터 '97년 7월까지 양허 관세가 지육 기준으로 20%이나 '95년 21,930톤, '96년 29,340톤, 97년 6월까지 18,275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고, '97년 7월 1일 이후에는 완전 수입 개방해야 하므로 국내 양돈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 단위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생산자의 구조 변화가 대두되었으며, 개별 양돈 농가들의 협동을 바탕으로 하는 양돈 생산 농가의 조직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최근 '91년에 양돈 농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한 양돈단지가 정부의 지원에 의해 조성되어 도시화에 의한 환경문제와 양돈단지 입지 확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전이 불가피한 양돈 시설을 단지화 및 협업화하여 시장 교섭력을 제고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유도·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즉 국내 양돈 단지는 개별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보다는 정부의 양돈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으며 '91년부터 시작된 양돈 단지는 '95년 현재 지역적으로는 경기도 14개소, 강원도 9개소, 충청도 7개소, 전라도 16개소, 경상도 11개소, 제주도 8개소로서 65개소이며, 사육 농가 648호, 사육 두수 89만두로서 국내 총 사육 두수(600만두)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기반시설 및 부대 시설 설치비를 참여 농가당 3억원 이내(2년간 50%씩 분할 지원)에서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단, 조사료 생산 장비, 기타 기구, 장비 구입비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정부의 지원 액수는 약 1,329억원으로 축산 오·폐수 처리 시설 지원비까지 합한다면 약 2,000억원 규모의 지원으로 볼 수 있다.

## 2. 양돈단지 조성 및 운영의 문제점

이러한 막대한 정부의 지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양돈 단지 조성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기존 양돈 단지는 공사 지연이나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하여 생산 및 출하 두수에 차질이 발생하여 지원된 융자금에 대한 상환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경영 기술 지도 사업이 필요하다.

신규 양돈 단지 조성 또한 효율적인 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술 지도 및 진단 사업이 필요함에도 경영진단과 기술 지도를 위한 전담 기구가 없는 실정이므로 표준 모범 양돈 단지의 경영 방법과 기술 등을 교육과 방문 지도 및 상담을 통하여 전달함으로써 양돈 단지 상호간 정보 교환과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특히 신규 양돈 단지는 효율적인 투자 및 경영 계획을 할 수 있는 상담과 자료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양돈 단지 조성 부지는 돈사 건축 및 단지 조성에 따른 타 법제상 제한이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확보하여야 하나 단지 조성 전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부족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적지 않다.

따라서 단지 조성 전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 를 거쳐 상호간 마찰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양돈 단지 조성을 위한 농지 전용 및 건축 허가시 행정 준비 부족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바 행정절차를 간편화시켜야 한다.

넷째,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려는 바 적합자가 선정되거나 시설 중복 투자와 생산성 저하 등의 사후 관리 능력 부족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양돈 단지의 선정 시에는 선정 대상자가 양돈 단지 대상 부지를 자체 확보하고 있는지 또 전업농가 5호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이 가능한 양돈 단지인지 등을 철저한 실태 조사와 현실적인 검증과 심사가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중돈 구입비 등은 고정 자본재임에도

불구하고 양돈 단지에는 농공단지 조성이나 중소기업 창업에는 지원되는 운전 자금이 지원되고 있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특히 영농 조합 법인을 조성하지 못한 영세 양돈 단지의 경우 거의 세계상의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양돈 단지는 영농 조합 법인으로 유도하여 세계상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여섯째, 담보 능력이 부족한 양돈 단지를 위한 신용보증기금 제도가 취약하므로 정부 및 관련 단체의 신용 보증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3. 맺음말

국내 사육 두수의 15%를 차지하는 양돈단지가 생산자들의 새로운 농업 경영체로 자력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업화에 의한 경제성이 지속될 때 생산자 조직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을 것이다.

양돈단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효율적 결과나 경영체의 영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단계별 각자의 역할과 체계적인 전략이 있어야 하겠고 단지 조성전의 정책적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조성 후의 입식 및 사후 관리에도 역점을 둔 지속적인 기술 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복되거나 비현실적인 경영진단 및 기술지도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고 양돈 단지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양돈 전문가와 경영진단 분야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